



오인회 소식

2017년 11월 (제74호)

권두언 (卷頭言)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지금 존재한다.
이유 없이 마음이 떠오른다.

말하며 관계하고,
즐겁다가 노엽고,
죽는 듯 사는 듯

매순간 펼쳐지는 세상에 몰입하다,
문득 이 모든 것이 아무 이유 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고서
툭툭 아무 이유 없이 웃음난다.

- 惺智 -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홀로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 10월 20일 여행 1만원/ 10월 27일 장경옥 10만원/ 10월 31일 곽은구 10만원/ 11월 9일 류창형 3만원/ 11월 10일 선호 1만원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일반후원 (기보 100만원/ 연주 60만원, 바람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명 100만원)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2년간/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 입니다)

- 일반 (익명1/24, 익명2/24, 능주13, 솔내음12, 무유11, 고을11, 서원10, 여몽11, 원님11, 기보11, 썬이9, 허유9, 거위9)
- 기타 (가온12, 구당11, 자현11)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번뇌즉보리 총서 2권이 준비 중입니다. (대승기신론上 출판 완료, 中 출판비 : 450만원/ 현재 후원액 2,669,951원 (上출판 이월금 215,451원, 능주40만원, 우현 254,500원, 기보 100만원, 금산스님 50만원, 나무 30만원)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대승기신론 강의(57) - 2013년 6월 18일 월인(越因)



지난 시간 마지막 원문 중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自信己性, 知心妄動, 無前境界, 修遠離法. 자신기성, 지심망동, 무전경계, 수원리법.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믿어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이는 것일 뿐 앞의 경계가 없음을 알아 멀리 여의는 법을 닦는다.

마음이 처음에 망령되이 움직이는 게 전식(轉識)이죠. 마음의 망동(妄動)이나 망념(妄念), 또는 전식(轉識)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음의 첫 번째 움직임은 주체와 대상이 나뉘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어딘가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어딘가로 움직인다는 것은 시작점과 도착점이 생겨난다는 얘인데, 이것이 바로 주체와 대상으로 나뉘는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앞의 경계가 없다(無前境界)는 말은 이것 말고 다른 경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이 경계가 시작이라는 뜻이죠. 즉 나와 대상이 생겨나는 경계를 말합니다. 그것과 그것 아닌 것으로 나누는 것이 경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곧 분리를 의미합니다. 멀리 떠나는 법(修遠離法)은 경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경계를 없애려는 게 아니고 경계가 없다는 걸 알아서 멀리 떠나는 거죠. ‘있다’로부터 떠남을 말합니다. 자신기성(自信己性)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최초의 오해가 생겨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게 하나의 분리된 개별체로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 즉 개별화된 자기가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으로부터 오해가 생겨나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의 깊은 심층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서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총집합을 아라야식이라고 합니다. 업식(業識), 제8식(識), 또는 여래장(如來藏)이라고도 하죠. 아라야식의 기본적인 정보, 느낌들의 총합이 전식(轉識)의 토대가 되어 첫 움직임이 일어나 전식으로 가면 나와 대상으로 분리되므로 어떤 ‘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라야식 자체에는 분리가 없기 때문에 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라야식은 모든 분열의 원천이지만 아라야식 자체는 분리 없음입니다. 그래서 여래의 씨앗이 저장 되어 있다는 의미로 여래장이라고도 합니다. 아라야식 자체는 중생(衆生)의 마음을 만드는 토대가 되지만, 또한 부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여래의 씨앗, 즉 깨달음

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7식(識)까지의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저장소라는 의미로 제8식(識)이라고도 합니다.

아라야식이 한 번 움직이면 다시 말해 망동(妄動)하면 전식(轉識)이 됩니다. 방향이 없는 움직임이라는 건 없지요. 그리고 방향이 있다는 것은 움직임의 시작점과 도착점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나와 대상의 분리죠. 그 다음으로, 움직이면 대상들끼리 분리가 일어나고 경계가 생겨나서 다양한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현식(現識)입니다. 이때부터 경계가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죠. 경계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핸드폰을 경계를 지닌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 몸집 크기를 바이러스 크기만큼으로 여길 정도의 큰 손을 가진 거인이 있다면 그 거인은 이 핸드폰과 사람을 분별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사람과 핸드폰 사이에 경계가 없는 것이고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닌 거죠. 둘 사이의 경계란 각각을 분별할 수 있는 측정 장치를 가진 마음에게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핸드폰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핸드폰을 측정해 낼 수 있는 감각기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고 합니다. 소립자 수준까지 볼 수 있는 감각기로 핸드폰을 본다면 허공으로 가득 차 있고, 다시 물리적인 차원으로 나오면 핸드폰은 하나의 물질로 존재합니다. 즉 핸드폰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관계 맺을수록 핸드폰은 점점 공(空)에 가까워지고, 표면적인 물리적인 모습으로 점점 나와서 관계 맺을수록 핸드폰은 색(色)에 가까워지겠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표면에 있느냐, 본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색(色)적인 관계 맺음인지 공(空)적인 관계맺음인지가 구별되는 것이지, 사실 공(空)도 없고 색(色)도 없는 겁니다. 관계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상을 볼 때, 현상을 정말 실질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에게는 그 현상이 색(色)으로 존재하고, 현상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임시적인 상(相)일 뿐 본질은 비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마음에게 지금 이순간 그 현상은 공(空)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색(色)은 곧 공(空)이 되는 겁니다. 색(色)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고, 또는 다르게 말하면 색(色)도 아니고 공(空)도 아닌 거죠. 그래서 비유(非有), 비무(非無), 비비유(非非有), 비비무(非非無) 등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非有), 있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非非有), 없다고도 할 수 없고(非無),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죠.(非非無).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움직임을 통해서 나와 대상이 생겨나기에 그렇습니다. 색(色)으로 보는 마음이 생겨나면 색(色)으로 존재하는 주체와 대상이 생겨나고, 공(空)으로 보는 마음이 생겨나면 공(空)으로 보는 주체와 대상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망동(妄動)입니다.

대승의 신심(信心)은 경계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분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멀리 떠나는 법을 닦는 것이 수원리법(修遠離法)입니다. 망동의 첫 경계 지어짐은 일시적인 에너지 흐름 때문에 생겨난 착각일 뿐, 변함없이 고정된 경계는 아닙니다. 그냥 나타났다 멈추는 움직임 속에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현상이 잠깐 일어나는 것일 뿐, 고정불변한 것은 아님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경계를 떠나는 겁니다.

일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2차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후회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런 후회 속에는 이미 나와 대상의 분리인 전식이 일어나 있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자기 강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후회가 드는 순간, 나와 대상이 분열되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아채는 것이 수원리법(修遠離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화살을 맞은 자를 자기라고 여기지 않게 되면 점차 1차 화살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라는 분열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쁜 짓 하고서 후회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밑바탕에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을 자기라고 여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임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자신기성(自信己性) 때문에 망동(妄動)이 일어나는데, 그 망동 이전의 경계는 따로 없습니다. 망동 자체가 바로 경계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 이전의 경계, 그 외의 다른 경계는 없다는 것이 무전경계

(無前境界)의 의미입니다. 나와 대상, 주체와 객체가 생겨나는 전식(轉識)이 최초의 경계입니다. 아기일 때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 보면 ‘자기’라는 것은 만들어진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계 지어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느낌으로 장착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의 미묘한 느낌들을 세밀하게 분별해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지(感知)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분별이후에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빠" 라는 호오(好惡)가 붙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이전의 분별은 우리 마음을 살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지는 바로 분별 자체입니다. 분별에 좋고 나쁨이 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호오가 없는 분별인 현식(現識)까지는 괜찮습니다. 현식에 좋고 나쁨이 붙는 지식(智識)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업식, 전식, 현식까지가 현상의 인(因)이고, 지식, 상속식, 의식이 현상의 연(緣)입니다. 인(因)과 연(緣)이 합쳐진 인연(因緣)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경계 지어진 현상 세계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以如實知無前境界故, 種種方便, 起隨順行, 不取不念. 乃至久遠熏習力故, 無明則滅.
이여실지무전경계고, 종종방편, 기수순행, 불취불념. 내지구원훈습력고, 무명즉멸.

앞의 경계가 없음을 여실히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순행(隨順行)을 일으켜 집착하지도 않고, 잘못 생각하지도 않으며, 오랫동안 훈습한 힘 때문에 무명(無明)도 멀하게 된다.

경계란 마음이 망령되어 움직인 것이지, 그 외의 경계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컵과 탁자를 보다가 감각상태로 들어가면 마음이 컵과 탁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감각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컵과 탁자가 구별됩니다. 마음이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의 컵과 탁자를 볼 때 두 개가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마음속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一切分別, 則分別自心. 心不見心, 無相可得 (일체분별은 자기 마음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니, 마음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상(相)을 만들 수 없다.) 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마음 자체를 볼 수 없어요. 잡을 수 있는 상(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相)들의 재료가 될 뿐, 마음 자체의 상(相)은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두려움, 분노, 기쁨, 슬픔 등의 다양한 감정과 갖가지 생각들이나 미묘한 느낌들은 모두 마음이 잡을 수 있는 상(相)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相)들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 자체는 잡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상(相)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마음 자체가 특별하게 고정된 하나의 상(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자신을 보지는 못한다는 말과 똑같죠. 외부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분별을 포함한 모든 분별은 내 마음속 분별입니다.

이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감각이 바로 분별자심(分別自心) 상태 이전입니다. 감각으로 들어가 보세요. 마음속의 분별이 없어지죠. 마음의 상(相)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에너지를 빼버리면 됩니다. 탁자와 컵을 분별하는 마음에서 주의의 강도를 낮추세요. 주의 제로! ‘눈에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되나요? 마음의 상(相)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흐리게 느껴집니다. 다시 감지로 나오세요. 이름과 생각은 없지만 어떤 느낌이 구별되는 상태가 되지요? 마음에 컵과 탁자의 느낌이 나타나는 이때부터가 분별자심(分別自心)입니다. 감각 상태일 때는 ‘나’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죠? 분별자심(分別自心) 이전에는 자기도 대상도 없으니까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상태, 심불견심(心不見心)입니다. 우리 방식으로 말하자면 마음 자체에는 잡을 수 있는 감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볼 주체도 없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지 상태로 나오면 주체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마음이 어떤 형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은 어떤 상(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相)이 없으면, 다시 말해 감각으로 들어가면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점차 태극(太極)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기 때문에 즉 상(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감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심불견심(心不見心)입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계를 멀리 떠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경계가 없음을 파악하는 훈련이에요. 경계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경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일까요? 뭔가를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에 주의가 붙들리

기 때문입니다. 없애려고 하면 없애기 위해 그것에 도리어 집착하게 됩니다. 불취(不取)의 취(取)가 집착을 의미합니다. 불념(不念)은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이어서 말하는 혼습은 진여를 혼습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경계 없는 진여를 닦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집착하지도 않고 잘못 생각하지도 않으며 오랜 시간 혼습하면 무명(無明)도 멀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무명(無明)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생멸문에서의 얘기죠. 진여문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고 했지만, 현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이렇게 생멸문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취불념(不取不念)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불취(不取)는 사취번뇌(四取煩惱)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취(四取)는 욕취(欲取), 견취(見取), 계금취(戒禁取), 아어취(我語取)입니다. 욕망하는 집착, 견해를 가지는 집착, 억지로 고행하고 계율을 지키려는 집착, 자기의 주장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고행하고 규율을 지키는 것도 집착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런 집착도 외도(外道)라고 합니다.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내가 있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착입니다. 뭔가 발견되고 깨쳐졌다고 해서 “이게 옳아”라는 마음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아어취(我語取)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어취는 잘 보면서 자기의 아어취는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네 가지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취(不取)입니다.

불념(不念)은 법집분별념(法執分別念)을 일으키지 않음을 말합니다. 불교 수행에 장애가 되는 그릇된 두 가지 집착이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입니다. 법집은 일체의 사물이 각기 고유한 본체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집착입니다. 무명의 씨앗인 아라야식이 움직여서 주체와 대상, 즉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으로 나뉩니다. 이 나뉜 것에 집착이 생겨나는데 견분(見分)은 아집(我執)이 되고, 상분(相分)은 법집(法執)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나와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집과 법집입니다. 제 7식(識)인 마나스식(Manas識, 말나식)에 해당합니다. 6식(識)까지는 경계와 분별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덧붙여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마나스식입니다. 나와 대상이 임시적으로, 상대적으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깨어있기 기초과정 때 에서의 검은새와 흰새 그림을 봤었죠.



최초의 그림은 흐릿한 검은색 삼각형과 흐릿한 흰색 삼각형이 서로 붙어 있다가 점차 전개될수록 흰새와 검은새 둘 사이에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공간이 “내가 너를 본다.”, “나는 네가 아니다.”를 의미해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던 상태에서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아집과 법집의 마나스식(‘내’가 존재한다, ‘법’이 존재한다라는 망령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이 독립되어 있다고 여기는 ‘나’는 아라야식이 작용해서 주체와 대상으로 나뉜 것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나’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된 에너지가 머물기 때문에 자신이 전체 마음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라고 여기는 마음이 아라야식의 작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기’때문에 분별이 없는 아라야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얇, 즉 식(識) 속에 존재함을 모르고 식(識) 밖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마나스식, 제7식(識)입니다. 나와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통해서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이 일어나고 마음의 작용이 자각되지 않으므로 무명(無明)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경계가 착각임을 계속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알아채를 통해 집착에서 멀어지고 불취불념(不取不念) 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 그 힘에 의해서 무명도 멀하게 됩니다.

다.

以無明滅故，心無有起。以無起故，境界隨滅。 이무명멸고, 심무유기. 이무기고, 경계수멸.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없고,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따라서 멸한다.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건 분열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잡히는 어떤 감지도, 경계적인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계가 고정불변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이 사라지면 그 경계가 멸합니다. 마음속의 경계가 멸하면 즉각 무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채면 끝인 거예요. 물론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을 다루어야 하겠죠. “우리는 이미 완벽해. 우리는 완전해.”라고 자주 말하잖아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인 파도를 자기라고 믿는 것이 문제일 뿐, 그런 습관적인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미 이 순간도, 100년 후에도, 2만 년 전에도 완전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무명이 멸(滅)한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동념(動念)에 의해서 경계와 분별이 생겨나고, 좋고 싫음이 생겨나고, 이어서 즐기고 저항하는 고락이 생기고, 집착이 일어나 파란만장한 의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계입니까? 파란만장하지 않은 인생은 밋밋하죠. 그렇지만 파란만장한 현상의 깊은 곳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절대고요가 있습니다. 절대고요에 기반한 파란만장함은 재미있지만 절대고요를 파악하지 못한 인생은 괴로울 뿐입니다.

以因緣俱滅故，心相皆盡，名得涅槃，成自然業。 이인연구멸고, 심상개진, 명득열반, 성자연업.

인(因)과 연(緣)이 모두 멸하기 때문에 심상(心相)이 다 없어지니, 이를 열반을 얻어 자연업(自然業)을 이룬다고 한다.

자연업(自然業)은 생각할 수 없는 미묘한 업(業)의 쓰임(불사의업용不思議業用)을 말합니다. 업(業)이 쓰여서 열반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과정인 정법熏습(淨法熏習) 중에서 망심熏습(妄心熏習)이 끝났습니다. 정법熏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여가 무명에 영향을 미쳐서 깨끗하게 하는 진여熏습(眞如熏習)과 망심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게 만드는 작업인 망심熏습(妄心熏習)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생사와 열반의 나눔 자체가 착각된 분열인데,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애써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분열이 아니라 착각된 분열이라는 것, 마음의 분열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 망심熏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망심(妄心)을 가르치고 물들여서 정법(淨法)으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하는데, 그 중 하나는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노력은 착각 속에서, 꿈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멸문은 다 꿈속의 일이고, 진여문은 깨어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지만 꿈속에서는 꿈을 깨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아무리 애써봐도 꿈속의 애씀일 뿐이죠. 꿈속에서는 아무리 해봐도 깨어나는 꿈일 뿐이지 실제로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꿈이야, 꿈이야” 하다보면 진한 꿈이 점차 열어가다가 어느 순간 발버둥을 치면서 깨어납니다. 깨달음과 자각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꿈속의 현상인 생멸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생멸문을 벗어난 진여문에서는 깨달음도 없다고 말하지만, 생멸문 속의 일반 대중에게는 생사의 고통 속에 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거나 마음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는 마음 자체는 또 다른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또한 마음이 그려내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거기에 영향 받지 않고, 느낌은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아니까 자유로워요. 느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이 경계 지어진 고정불변한 존재라고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어도 괜찮게 되죠. 괴롭게 느껴지긴 하지만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왜 괴롭게 느껴집니까? 내 안에 쌓인 아라야식의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을 위한 기본 재료인 그 씨앗은 나도 모르게 장착되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라는 감각기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감각 기관의 한계 내에서는 항상 생멸(生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기관 자체가 하나의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자신을 감각기관의 현상 속에 묶어두지 않는다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생명의 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힘이라는 것도 하나의 개념입니다만, 어떤 틀과 개념에도 묶이지 않는,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그 토대를 자유롭게 쓰면서 살다 가면 됩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세요.

청년 백일학교와 홀로스 공동체 학교

1. 감지인텐시브 참가자 후기 / 정원님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함양연수원에서 감지를 주제로 집중적인 연습과 피드백을 받는 '감지 인텐시브'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하신 정원님의 통찰의 경험을 나눕니다.



정원님

주의가 보내지면 먼저 '대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느낌'이 생겨나오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의가 세면 나라는 느낌이 더 세지고 주의가 약해지면 나라는 느낌도 덩달아 약해지는 느낌을 알겠는데, 이것이 제가 궁금해하는 그 본질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의와 느낌에 민감해지는 연습을 통해 내가 어떻게 대상이 되고 주의가 나에게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낌으로서의 감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생각을 동반한 느낌이 몸에서 알아지면 그 느낌을 느끼고 주의 조절을 통해 그 맨 느낌의 변화를 보고, 느낌이 사라지면 생각은 그냥 박제된 생각이 되는 과정을, 생활에서도 적용하면서 감지 연습을 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하나 하나 알게 해준 도건님께 고맙고, 편안하게 머물게 배려해준 온비님, 성지님, 통무님 고맙습니다 ^^

2. 홀로스 공동체 일상 이야기

1)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담궜던 하루

이른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2개월 전에 심었던 배추가 속이 딱 찼습니다. 배추와 무를 수확하여 본격적으로 2017년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김장을 도와주시러 지곡아주머니께서 출동하셨습니다. 김장에 대해 잘 모르는 저희 홀로스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배추 절이는 방법부터 김장 양념 비법까지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무장갑을 끼고 절인 배추 속에 양념을 묻혀가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수육을 삶아 갓 담은 김치를 쭈욱 찢어 맛있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ㅎㅎ. 매년 김장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께 감사드립니다 ^^



2) 함양의 마스코트, 까미와 아이들 :)



함양 연수원의 마스코트, 까미가 새끼를 낳은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4마리 모두 건강하다 못해 통통해진 몸매를 자랑하며 자유롭게 함양연수원 잔디밭을 뛰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전에는 암컷 모키가 동네 주민분께 입양을 갔습니다. 2개월 동안 마치 자식처럼 키웠던 추억과 경험들이 떠올라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께 입양을 보내서 마음 한켠으로는 마음이 놓이고 감사했습니다. ^^ 새 집에 가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끝)